**골로새서 2:1-17   
“그리스도 – 하나님의 비밀,   
모든 그림자의 실제”**

**3/7 월**

**골 2:1-3**

**1** 여러분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과 심지어 나의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모든 사람을 위하여, 내가 얼마나 분투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.

**2** 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마음에서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함께 짜여, 깨달음에서 오는 넘치는 확신으로 온전히 풍성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됩니다.

**3** 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감추어져 있습니다.

**엡 3:8-9**

**8** 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이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전하게 하시고,

**9**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에게 밝히게 하시어,

**고전 2:7, 9-10**

**7** 오히려 우리는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, 곧 감추어져 있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.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.

**9** 오직 성경에 “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본 적이 없는 것들이고, 귀로도 들은 적이 없는 것들이며, 사람의 마음에 떠오른 적도 없는 것들이다.”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.

**10** 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영을 통해 그것들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. 왜냐하면 그 영은 모든 것, 심지어 하나님의 깊이들까지도 꿰뚫어 보시기 때문입니다.

**고후 13:11**

**11** 마지막으로 말합니다. 형제님들, 기뻐하십시오. 온전해지십시오. 위로를 받으십시오. 같은 것을 생각하십시오. 화평하게 지내십시오. 그러면 사랑과 화평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

**골 1:9**

**9** 그러므로 우리도 그 소식을 들은 날부터, 여러분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구하고 있습니다. 우리는 여러분이 모든 영적인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를 바라며,

**빌 3:8**

**8** 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또한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.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,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.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,

**3/8 화**

**골 2:4-7**

**4** 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무도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.

**5** 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지만 영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있어서, 여러분이 흐트러짐 없이 행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한 것을 보며 기뻐하고 있습니다.

**6** 여러분이 그리스도, 곧 주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니, 그분 안에서 행하십시오.

**7** 그분 안에 이미 뿌리를 내렸고 지금은 건축되고 있으니, 여러분이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이 견고해져서 감사가 넘쳐 나게 하십시오.

**롬 8:4**

**4** 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.

**갈 5:16**

**16** 내가 말합니다. 그 영을 따라 행하십시오. 그러면 여러분은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지 않을 것입니다.

**엡 3:17-19**

**17** 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,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서,

**18** 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   
**19** 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게 하시어,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여러분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.

**엡 2:20-22**

**20** 여러분은 사도들과 신언자들의 기초 위에 건축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은 모퉁이 돌이십니다.

**21** 그분 안에서 건축물 전체가 함께 연결되어 주님 안에 있는 성전으로 자라 가고 있으며,

**22** 그분 안에서 여러분 또한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건축되고 있습니다.

**3/9 수**

**골 2:4, 8**

**4** 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무도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.

**8** 누가 자기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사로잡아 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. 그런 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보적인 교훈을 따른 것이지,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닙니다.

**막 7:6-8**

**6** 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. “이사야가 위선적인 여러분에 관하여 잘 신언하여 ‘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.

**7** 사람의 계명을 교훈으로 가르치니 나에게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.’라고 기록한 것과 같이,

**8** 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면서 사람의 전통은 지키고 있습니다.”

**갈 1:14-16b**

**14** 또한 나는 유대교 안에서 내 동족 중 많은 동년배들보다 앞서가고 있었으며,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훨씬 더 열정적이었습니다.

**15** 그러나 나를 모태에서부터 따로 분별하시고 그분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

**16** 내가 그분의 아들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전파하도록 하시려고, 그분의 아들을 내 안에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실 때에, 나는 즉시 어떤 사람과도 의논하지 않았고,

**고전 2:1-5**

**1** 형제님들,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탁월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.

**2** 왜냐하면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입니다.

**3** 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었을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며 몹시 떨었습니다.

**4** 내가 나의 말과 선포를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그 영과 능력을 나타내면서 한 것은

**5** 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.

**3/10 목**

**골 2:9-12**

**9** 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을 지니신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.

**10** 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습니다. 그분은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.

**11** 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습니다. 그것은 곧 육체의 몸을 벗어 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.

**12** 여러분은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, 또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분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운행하심으로 생긴 믿음을 통하여 그분과 함께 일으켜졌습니다.

**요 1:16-18**

**16** 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에서 받았으니, 은혜 위에 은혜였다.

**17** 왜냐하면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것이지만, 은혜와 실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기 때문이다.

**18** 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으나, 아버지의 품속에 계시는 독생자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다.

**골 1:19-20**

**19** 왜냐하면 모든 충만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며,

**20** 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화평을 이루어,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들에 있는 것들을 그분을 통해 그분 자신과 화목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.

**벧후 1:1-2**

**1** 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할당받은 이들에게 편지합니다.

**2** 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에 관한 온전한 지식 안에서,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번성하기를 바랍니다.

**3/11 금**

**골 2:13-15**

**13** 허물과 육체의 무할례로 죽어 있었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,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셨습니다.

**14** 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는, 규례들이 적혀 있는 증서를 하나님께서 지워 버리셨고,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어 우리 가운데서 없애 버리셨습니다.

**15** 하나님께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벗기시어 공개적으로 드러내시고,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.

**엡 1:17**

**17** 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,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분을 온전히 알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   
**엡 4:13**

**13** 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에서의 하나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서의 하나에 이르게 하고, 충분히 성장한 사람에 이르게 하며,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.

**엡 6:12**

**12** 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이 있는 사람들에게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,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지배자들과 하늘들의 영역에 있는 악한 영적인 세력들에게 대항하는 것입니다.

**빌 3:8**

**8** 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또한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.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,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.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,

**벧후 1:2-4**

**2** 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에 관한 온전한 지식 안에서,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번성하기를 바랍니다.

**3** 그분은 자신의 영광과 미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분에 관한 온전한 지식을 통하여, 우리에게 그분의 신성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관련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.

**4** 그분은 이 영광과 미덕을 통하여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. 그것은 여러분이 이 약속들을 통하여, 세상에서 정욕으로 부패되는 데서 벗어나,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.

**3/12 토**

1. **골 2:16-17**
2. **16** 그러므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나 명절이나 초하룻날이나 안식일에 관하여, 아무도 여러분을 판단하지 못하게 하십시오.
3. **17** 이런 것들은 장래 일들의 그림자이며, 그 실체는 그리스도께 속한 것입니다.

**요 6:35**

**35** 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. “내가 생명의 떡이니,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,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.

**고전 5:7-8**

**7** 여러분은 본래 누룩 없는 사람들이니, 새 반죽이 되도록 묵은 누룩을 깨끗이 없애십시오. 왜냐하면 우리의 유월절, 곧 그리스도도 이미 희생되시어 제물로 드려지셨기 때문입니다.

**8** 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묵은 누룩이나 악독하고 사악한 누룩으로 지키지 말고, 순수와 진실의 무교병으로 지킵시다.

**롬 14:17**

**17** 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화평, 그리고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.

**골 1:10, 12-13, 18**

**10** 또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,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, 하나님을 온전히 앎으로써 자라기를 바랍니다.

**12** 여러분이 빛 가운데에서 성도들에게 할당된 몫을 받을 자격이 있도록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바랍니다.

**13** 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하시어,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 안으로 옮기셨습니다.

**18** 또한 그분은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. 그분은 시작이시며,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. 이것은 그분 자신께서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.

**3/13 주일**

**히 2:6-12, 14-15**

**6** 어떤 사람이 성경 어딘가에서 엄숙하게 증언하였습니다. “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생각하여 주시며,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돌보아 주십니까?  
**7** 주님은 그분을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으며, 그분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고, 주님의 손으로 만드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으며,  
**8** 만물을 그분의 발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.” 만물을 그분께 복종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분께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.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직 만물이 그분께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.  
**9** 다만 우리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봅니다. 그분은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되셨습니다. 그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.  
**10** 만물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또 하나님을 통하여 존재하므로,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 안으로 이끄시려고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는 것은 합당한 것이었습니다.  
**11** 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한 분에게서 났으므로,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들이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,  
**12** “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며, 내가 교회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겠습니다.”라고 말씀하셨으며,

**14** 자녀들이 피와 살을 가졌으므로, 그분 자신도 같은 모양으로 피와 살에 참여하셨습니다. 그것은 그분께서 죽으심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고,  
**15** 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일생 동안 노예 상태로 억눌려 있는 사람들을 해방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.

**추가로 읽을 말씀**

*라이프 스터디 빌립보서 메시지 17, 19, 21, 23-24*

**2022. 3. 7 ~ 2022. 3. 11**

**단체로 읽을 말씀: “하나님을 누리는 길” 15장, 16 장**

***The Church in New York City***

www.churchinnyc.org and churchnyc.org